

### 무안 '하늘별바다'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 선정



무안군은 청계면에 소재한 '하늘 별바다'가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관광재단은 매년 전남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해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공모에서는 무안 하늘별바다, 완도해양치유센터,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 세 곳이 선정되었다.

무안 '하늘별바다'는 아외 테라스

를 갖춘 숙박객실과 세미나실, 온수 인피디니 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예체험, 농촌체험, 갯벌체험 등이 가능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로 지난해에는 으뜸두레 사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하영미 관광과장은 "앞으로 신규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풍경과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 관광객 유치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문 기자

## 완도 동고리 해역 '1.59km<sup>2</sup> 바다숲' 조성 한다

군-효성그룹-한국수산자원공, 업무 협약  
탄소중립 기여·생물 다양성 보전 등 협력

완도군과 효성그룹,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가 완도 신지면 동고리 해역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한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군과 효성그룹,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는 지난 8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동고리 해역 바다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탄소중립과 바다 생태계 보전 ESG 경영실천' 업무협약식에는 김현철 완도부군수, 유인정 효성그룹 전략본부 상무, 장옥진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바다 생태계 복원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신지면 동고리 해역에 해조류, 해초류(갈피) 등을 이식해 1.59km<sup>2</sup> 규모의 복합숲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3개 기관·기업은 협약서를 통해 ▲바다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기여와 블루기반 기반 확대, 생물 다양성 보전 ▲바다숲의 중요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바다식목일의 대국민 인식 제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지난 2012년부터 청산모서, 청산 모동, 청산 소모도, 금일



중도, 금일 황제도, 청산 청계 등 6곳에 6.98km<sup>2</sup>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했다.

김현철 완도부군수는 "세계가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탄소중

립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바다숲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과 바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성 기자

### 목포, 개체수 조절 길고양이 증성화 사업 추진

연말까지 610마리 증성화 수술 후 제 장소에 방사

목포시는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길고양이 증성화사업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길고양이 증성화사업(TNR)이란 길고양이 개체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인도적 방법으로 포획해서 수술을 한 후 원래 장소에 방사해 주는 활동을 말한다.

증성화사업은 포획→수술→후처치→방사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술 후 후처치 회복을 위해 장마철, 혹서기 및 혹한기는 피하며, 체중이 2kg미만 이거나 임신, 수유 중인 길고양이는 증성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수술은 동물병원 5개소, 포획·방사 분야는 전남서남권 고양이복지협회 등 2개소가 맡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사업 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길고양이 돌보미 등 신청인이 직접 시정에 방문해 신청하면 진행된다.

목포시는 길고양이 증성화 사업을 2021년 325마리, 2022년 860마리, 2023년 610마리 등 매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개체수 조절에 따라 고양이 소음 등 피해 민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 해남 재정집행 전국 최고, 4회 연속 '최우수' 평가

집행률 84.3%로 전국 군 단위 1위 달성

해남군은 최근 행정안전부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를 차지하며, 4회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해남군은 지난해 1조 2180억원의 재정을 운용해 1조 313억원을 집행, 84.3%의 집행율을 달성했다.

특히 해남군은 전국 군단위 최대 지방재정 규모를 가졌음에도 집행률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하는 군정이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청

신호가 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이래 6년연속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또한 높아져 2023년 하반기 평가를 포함해 행안부 평가 4회 연속 최우수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부서 자체 점검 회의 및 주기적인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별 사례관리와 이월사업 추진상황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전망을 수시 점검해 각종 물품 및 공사 대금의 선금 지급과 연내 공사 마무리 등 지출 확대를 극대화했다.

이번 재정집행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분야에서 하반기 목표액 1615억원 대비 706억원을 초과 집행, 144%의 집행률을 달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데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 강진 병영 돼지불고기거리 방문의 달 감사 이벤트 개최

강진군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병영 돼지불고기거리에서 방문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병영 돼지불고기거리의 우수한 음식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서비스 제공 혜택과 사은품 증정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행사 기간에는 병영 돼지불고기 전문음식점 6개소(배진강, 수인관, 설성식당, 병영연탄불고기, 병영 서가네, 불금불과 불고기집)에서 음료수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돼지불고기 전문음식점에서 당일 결제한 증빙내역을 병영5일시장 내 진행본부에 제출하면 금액대별 사은품도 받을 수 있다.

사은품은 3만 원 이상 시 에코백, 랜턴 증정, 5만 원 이상 시 사은품 3종 중 택 1(탑블러, 보온보냉백, 밀프랩 용기), 10만 원 이상 시 드립백&텀블러 세트이다.

사은품 증정은 더 많은 관광객들이 혜택을 누리고 거리 일대를 홍보하기 위해 불금불과 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 파티) 행사 개장일에 맞춰 관광객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음료 서비스는 배진강, 병영 서가네, 설성식당, 불금불과 불고기집은 5만 원 이상 시 음료수 1병이 무료로 제공되며, 병영연탄불고기, 수인관은 금액대 상관없이 테이블당 음료수 1병이 무료로 제공된다.

강진=한홍수 기자

### 신안 "100+4대 피아노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오는 25일까지 참가 접수

신안군은 100+4 피아노섬 축제 둘째 날(4.28)에 진행된 '나도 100+4 피아니스트' 참가 접수를 4월 25일 18시까지 받는다.

바이엘 이상 치는 분야엔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 접수는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인원이 부족한 경우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본 행사는 전문적인 연주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무대이며,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음악적 기교로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

정이다.

접수 안내 홍보 기간에도 참가 신청 문의가 쇄도했으며, 한 문의자는 "내가 직접 축제에 참여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현실에 짜릿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오는 27~28일 양일간 개최되는 100+4 피아노섬 축제가 피아노를 사랑하는 모든 분이 참여해서 피아노 선율과 함께 하는 낭만과 감동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피아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김복록 기자

### '1회용품 없는' 영암왕인축제, 폐기물 7.1톤 감량했다

푸드코트 등에 다회용기 13종 제공 효과

영암군은 최근 '1회용품 없는 축제'로 시범 실시한 영암왕인문화축제가 폐기물 감량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왕인문화축제 시작 전 음식점·푸드트럭 모집·공고부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했다.

또 축제장 내 푸드코트와 시식코너 등 모든 부스에 13종의 다회용기를 제공했다. 다회용기를 사용한 축제 방문객들은 반납 부스에 이를 되돌



려줬고, 영암군은 매일 수거된 4만여 개를 고온·고압 세척과 건조, 살균

작업을 거쳐 다시 축제장에 내놓았다.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년 축제에 비해 영암군 추산 7.1t의 폐기물을 감량했다. 이는 이산화탄소 32.6t 감소와 미세먼지 226kg 감축하고, 30년 생소나무 3700여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에 해당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의 다회용기 회수 및 사용실태 등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또 다른 영암군 행사와 1회 용기를 주로 쓰는 장례식장 등 지역사회 전반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